

동네의원 '주치의' 당뇨·고혈압 등 관찰·상담 후 밀착관리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에 참가한 시민들이 지압길을 걸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희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의 보행능력을 테스트하는 6분 걷기 검사에서 착안되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정부가 내달부터 동네의원을 통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스마트폰이나 전화 등으로 관찰·상담하는 밀착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대 사망원인 중 7개와 연계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적인 만성질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 돌봄 등 추가적 비용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해 제도를 1년간 운영하고, 향후 심장질환, 천식 등 다른 질병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의 '주치의' 제도다.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관리계획을 세우고, 환자는 자가 측정기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혈당과 혈압을 재서 전화나 문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한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 진료 등 비대면 상담을 병행한 뒤 한 달쯤 지나 환자를 다시 만나 그간의 데이터를 진료에 다시 활용해 교육하고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

동네의원 의사 환자 직접 만나 대면진료 실시·환자 상태 따라 관리계획 세워 한달에 2번 정도 전화 진료 등 비대면 상담·그간의 데이터 진료에 다시 활용

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면서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그동안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소홀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 만성질환자는 지난 2014년 기준 13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 환자는 27.2%, 우리나라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인구 10만명당 3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8명)을 웃도는 이유 중 하나로 지속적, 체계적 관리 미흡에서 온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앞으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 우리사회의 변화 추세를 내다보면 만성질환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관리 체계는 제자리 걸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올해 800만 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00만 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이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4년 기준 전체 의료비 54조5000억원의 35%(19조4000억원)를 차지하는데, 지난 2003년 5조5000억원(26%)과 비교하면 4배 가깝게 늘었다. 만성질환 관리 실패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협할만한 수준인 셈이다.

여기에 간병, 돌봄 등 추가적 비용부담까지 감안하면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는 가계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증 만성질환자의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만 앓고 있는 환자 각각 7만1000명, 15만3000명 등 총 22만4000명 정도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고가정비를 이용한 진료보다 단순 밀착관리만 꾸준히 해도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데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부족해 대형병원을 드나드는 것이다.

반면 전체 만성질환 외래진료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38.7%에서 지난 2014년 36.2%로 줄었고, 같은 기간 진료인원도 72.1%에서 69.2%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의료수요를 동네의원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당 월평균 2만73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안착으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동네의원을 통해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경증 환자가 증증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김강립 보건 의료정책관은 "만성질환자에 대해 적절히 교육·관리만 해도 경증 질환이 증증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질환 전이 가능성을 20%만 줄어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간병, 돌봄비용 등 부수적 비용 경감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2016 고창 보부자와 수박축제





2016. 6. 17(금) ~ 6. 19(일)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생태숲 일원
<http://bokbunja.gochang.go.kr> 문의:063)561-1987